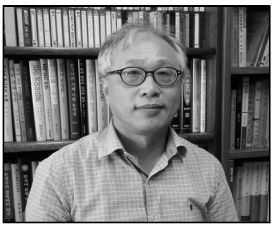
방언에서 우리말 담화 문법을 찾는다
— 이기갑 목포대학교 교수



이기갑(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질문자 이경우(서울신문 어문팀장)
때 2016. 8. 29.(월) 곳 교수 연구실

목포대 국어국문학과 이기갑 교수는 고향에서 방언을 연구한다. 물론 대상은 전라도 말이다. 그렇다고 방언만 연구하지는 않는다. 그 언어들 속에서 문화와 삶의 흔적들을 발굴하고 언어적 맥락에서 그것들을 해석해 나간다. 이 교수는 방언이 무궁무진한 콘텐츠의 보고라고 말한다. 방언은 살아 숨 쉬는 말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힘이 있다고 여긴다. 그 말을 사용하는 이들에게서는 넘치는 생동감을 느낀다. 이것은 때때로 감동과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1991년부터 2년간 미국의 캘리포니아대학에 방문 교수로 다녀왔는데, 이때 담화 문법을 접하게 된다. 방언을 연구하는 것에 새로운 방법을 접목하는 계기였다. 담화 문법은 글 속의 문장이 아니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법적 현상을 말한다. 담화 연구는 방언 못지않은 그의 주요 연구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됐다.

이렇게 해서 이 교수는 크게 세 분야를 공부했다. 하나는 한국어 문법이고, 또 하나는 언어 유형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가 담화 문법인데, 지난해

≪국어 담화 문법≫이란 학술 도서를 펴냈고, '2016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이 외에 ≪국어 방언 문법≫, ≪언어 유형론≫ 같은 책도 저술했다.

지금은 방언에서 나타나는 담화 표지, 그러니까 말할 때 빈 공간을 채우게 되는 말들이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담은 책을 준비하고 있다. 2학기 수업을 개강하는 날, 전남 무안군 목포대 그의 연구실을 찾았다.

이경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곳 공기가 참 좋습니다.

이기갑 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이경우 오늘(8월 29일) 개강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기갑 네, 그렇습니다.

이경우 누가 그러더군요. 경상도 쪽은 국어학, 언어학 하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많고 전라도 쪽에는 적다고요. 그 말이 맞는 건가요.

이기갑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대학이 많잖아요. 대학도 많고 학문적 전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현배 선생님이 울산에 계시고, 허웅 선생님도 김해 출신입니다. 선배 학자들이 많이 계시죠.

이경우 그런 전통의 영향이 좀 큰 거군요.

이기갑 네, 그렇지만 여기는 예술 쪽이 강하다고 할 수 있죠.

이경우 선생님께서는 전라도 지역에 계시고, 방언을 연구하신다는 것도 약간 특이하거나 다르다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기갑 저는 여기가 고향이니까요. 개인의 학문적인 목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방 문화 연구에 기여한다는 보람이 있습니다. 이 지역 방언 연구가 그렇게 많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라는 일본인 학자가 연구한 적이 있었죠. (일제 강점기) 경성제국대학 교수였죠. 조선어학부 교수였는데, 동경제국대학

언어학과 출신이었습니다. 언어학과 출신이면 대개 자기 모국어 이외 언어를 많이 연구하거든요. 근데 조선어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주된 관심사였죠. 그러니까 식민지화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필요했을 겁니다. 경성제국대학 교수라 그때 나라에서 다 협조를 해 주었죠.

이경우 기본적인 것에 대해 관에서 충분히 뒷받침을 해 줬군요.

이기갑 관에서 제보자도 다 구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함경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방언 조사를 1920, 30년대에 다 해 놨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제주도와 경상도 두 지역에 대한 방언 연구가 주를 이루었어요. 북한 쪽도 그렇고, 충청도나 전라도도 방언 연구가 별로 없었지요. 제가 여기 1981년에 왔는데 지천에 있는 게 방언이죠. 그래서 학위 논문을 이 지역 방언으로 했습니다. 당시 연구가 별로 안 돼 있어서 더 좋았죠.

이경우 선생님의 연구 논문과 저서 목록을 보니까 전라도 지역 방언 논문이 주류였고, 저서도 그렇더군요. 서울에 유학을 하셨는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요.

이기갑 그렇진 않고요, 언어학과에서는 한국어를 별로 연구하지 않습니다. 국문과가 있기 때문에 언어학과에서는 다른 나라말이나, 우리말의 계통 등 역사적인 것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연구하는 풍토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데 허웅 선생님을 지도 교수로 모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어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분이 15세기 중세 국어를 연구하시니까 저도 그쪽을 하게 됐다가 이렇게 고향으로 오면서 방언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경우 일찍부터, 그러니까 고등학생 시절부터 고향 말에 특별한 관심이 있으셨나 했습니다.

이기갑 그랬다면 국문과를 갔을 텐데 국문과 갈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살아 있는 언어, 방언에 관심을 갖다

이경우 그러면 고향 언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요.

이기갑 우선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려 한 거죠. 남들이 소홀히 하는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문법이 주 관심사인데, 표준말 중심으로 많이 하니까 저까지 굳이 거기에 가세할 필요는 없었죠. 그래서 방언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살아 있는 언어잖아요. 지금도 매일 쓰고 있는 말이어서 더 관심이 들었죠.

이경우 전라도 방언에 대해 거의 30년 가까이 연구해 오신 거잖아요. 전라도 말의 특징, 매력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기갑 전라도 지역은 한반도의 서남쪽이잖아요. 서울에서 꽤 멀리 있습니다. 한데 우리나라 방언을 크게 나누면 동서로 구분하거든요. 함경도부터 경상도까지는 성조가 있습니다. 성조 언어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성조가 없고, 음의 길고 짧음이 있어요. 음장 언어라고 합니다.

이경우 음의 장단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쪽 지역 언어를 보고 그러시는 건가요?

이기갑 네, 서쪽 사람들이겠죠.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쪽 사람들이 좀 구별을 하죠. 고저가 있는 쪽 사람들은 길이를 잘 구별하지 못해요. 사람의 눈[눈]과 하늘에서 내리는 눈[눈 :]을 잘 구별하지 못하더라고요. 전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섬이 많잖아요. 섬 지역의 독특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섬이 갖는 고립성, 이런 것 때문에 옛날 말의 흔적이 조금 더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양 문화적

인 요소가 있는 거죠.

이경우 그런데 경상도 말은 경상도 지역 외 사람들이 판단할 때 좀 거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기갑 성조 때문에 그렇죠.

이경우 전라도 말은 구수하다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기갑 성조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전라북도나 충청도에 비해 덜 느리죠. 충청도나 전라북도는 좀 느리고요.

이경우 그런데 왜 느리죠?

이기갑 왜 느린지는 모르겠네요. 전라북도만 해도 전라남도에 비해 좀 느리다고 봐요. 제 고향이 담양인데, 담양은 전라남도의 북쪽이니까 전라북도와 접해 있거든요. 거기서도 조금 느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전라남도는 전라북도에 비해 조금 덜 느린 대신에 된소리가 좀 많죠.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강한 소리가 더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여름철에 먹는 채소 '가지'가 있잖아요. 이 '가지'를 '까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소리가 꽤 많아요.

이경우 소리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된 건가요?

이기갑 그 이유는 잘 모르겠군요. 전반적으로 우리 고대에는 그런 된소리가 없었습니다. 현대로 점점 내려올수록 그런 된소리가 많아지는데, 지도를 펼쳐 보면 중부보다는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된소리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경우 지역에 따라 말이 갈라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기갑 일차적으로는 개인에 의해 변합니다. 누군가 맨 처음에 변화를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변화된 것이 퍼져 나가는 거지요. 왕래가 활발한 데서는 점점 더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거나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람들의 왕래 정도에 따라 퍼져 나가는 속도가 다르게 되죠. 큰

산이 있으면 사람들이 못 가잖아요. 여기는 변화가 시작되고 말이 변했는데, 산 너머가 변하지 않았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리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에 따른 것이죠. 휴전선 같은 정치적인 장벽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변화된 언어가 전파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다양한 분화가 이뤄지는 거죠.

이경우 지리적 환경 등으로 인한 왕래의 제약 같은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겠군요.

이기갑 산이나 깊은 바다가 왕래를 막잖아요. 그런데 전라도에 있는 섬들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배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인근 육지 지역과 큰 차이가 없는데, 제주도처럼 왕래가 힘든 지역은 장애를 받는 거죠.

방언을 연구한다는 것

이경우 오랫동안 방언을 연구해 오셨습니다. 방언을 연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기갑 방언 연구는 실제 역사적인 연구죠.

이경우 역사 연구요?

이기갑 언어 변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의 정도나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달라요. 그런 걸 다 비교해 보면 변화의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변화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어떨 때는 더디죠. 그걸 비교해 보면 '아, 이 단계를 거쳐서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언어 변화의 방향도 알 수 있죠. 그걸 역으로 뒤집어 보면 문헌에는 없는 옛날 말이 어땠을 것이라는 가상도 할 수 있죠. 자료를 모아서 범인 잡을 때 몽타주 그리듯이 조그만 힌트라도

잘 모으면 그 이전 단계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역사적인 시각에서 중요하죠. 둘째는 역사와 상관없어도 이 언어 자체만으로도 체계가 있어요. 문법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어휘도 물론 다르고요. 이 언어 자체에 대한 체계를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휘를 가지고 보면 이쪽 사람들의 문화를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음식 이름 또는 여러 형태의 집 이름, 이런 걸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바닷가 사람과 육지 사람은 또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경우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신 일본인 오구라 신페이가 전국의 방언을 연구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 심리를 알기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요?

이기갑 일차적인 것은 우리말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런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은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구를 했겠죠. 왜냐하면 그 양반이 향가를 맨 처음 해독한 사람이에요. 양주동 선생이 그것에 화가 나서 다시 작업을 했죠. 일본 사람에게 뺏겼으니까요. 향가 해독을 하려면 고대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만큼 오구라 신페이는 우리말의 역사에 대해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었어요.

이경우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전라남도 지역어를 연구하시면서 지역어를 조사, 전사하는 국가사업에도 오래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기갑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작업이었죠.

이경우 작업하신 양만 해도 엄청났겠습니다.

이기갑 그 이전 1980년대에도 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방언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방언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면 '가지', '무'면 '무', 단어 하나에 대해 각 지방에서 어떤 단어를 쓰느냐를 가지고 지도에 표시를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전국적인 방언 조사를 하는 이유는 방언 지도를 그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한 쪽 조사가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죠. 하여튼 1980년대에 조사가 있었고, 20년 후에 국립국어원이 조사를 한 거죠. 그것을 보면 20년 동안 어떻게 언어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 수 있죠. 1980년대에는 주로 단어 조사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구술 발화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녹음해 전사를 했죠. 그걸 보면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도 21세기 초 어느 지역의 언어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경우 선생님은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신 거잖아요. 다른 지역의 말을 조사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덜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대로 너무 잘 알아서 생긴 문제 같은 것은 없었는지요.

이기갑 너무 익숙해서 놓치기 쉬운 점도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실제 이득이 많죠.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경우 10년 동안 조사한 방언 결과물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요.

이기갑 자료집, 보고서 형식으로도 나와 있고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도 파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방언 지도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죠.

이경우 일반인들이 방언 조사 자료에 대해 관심을 갖기는 어려울 텐데요, 지도도 좋지만 대중들이 방언에 대해 흥미를 갖고 다가서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이기갑 지도에서 해당 지역을 클릭하면 조사된 음성이 바로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죠. 방언 지도가 완성되면 지역의 구체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일반 대중들도 재미있어 할 것 같습니다.

지역어, 언어의 변화를 알리다

이경우 네, 방언 지도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한데 방언 조사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조사 방법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구의 발달 등을 포함해 달라지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지역어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요?

이기갑 일반적인 방언 조사 방법에 따라 군 단위로 조사를 합니다. 군의 한 지점을 선정한 뒤 제보자를 구하죠. 그런데 과거에는 60대 이상을 제보자로 선정하라고 했어요. 지금은 60대 이상이면 청년이고, 또 교육을 많이 받아서 억양이 표준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70대, 80대를 찾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워낙 텔레비전을 많이 보니까 표준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 조사와 달리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좋아진 점은 지금은 녹음기도 디지털을 쓰지 않습니까. 디지털 녹음기를 쓰면 장시간 조사할 수 있어 좋습니다. 과거에는 테이프를 교체하느라 긴 시간을 이어서 할 수 없었죠. 그 밖에는 과거와 비슷합니다.

이경우 방언 조사는 품도 많이 들고 정리하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기갑 조사도 조사지만 전사,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의 말을 그대로 글로 옮기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이경우 직접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겠네요?

이기갑 정확해야 하고 웃음, 한숨 같은 것까지 다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표준말로도 옮기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그런 구술 발화 전사 작업이 제일 힘들어요.

이경우 지역을 다니면서 만나는 분들이 7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을 텐데, 약주도 꽤 하셨겠습니다.

이기갑 제보자는 어떠해야 한다는 조건들이 있죠. 교육을 좀 안 받았다든가, 외지 출입 경험이 없다든가 하는 것들인데, 그중 하나가 신체가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가 빠졌다든가, 귀가 안 들린다든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술을 드신 분은 발음이 분명치 않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술을 드신 분들도 계시죠. 한데 저는 남성들보다 여성, 그러니까 할머니들을 좋아해요. 할머니들이 언어적인 감각도 더 있고 말씀도 더 잘하시더라고요. 남성들이 잘 아는 집 짓기 이런 것 말고는 여성분들이 더 나았습니다.

이경우 특별히 보람이 있었던 조사나 기억에 남는 장면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기갑 방언 조사 자체가 보람인데요, 역시 이제 노령이다 보니까 2, 3년 후에 가 보면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노령인 분들은 열흘 이상 조사하거든요. 날마다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때는 가서 자기도 해야 하는데, 10회 이상을 해야 전체적인 질문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정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경우 전라도 지역은 모르는 곳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기갑 그렇진 않습니다. 섬도 많고 그래서요. 군 단위 정도는 다 알겠지만, 꽤 넓어서 면 단위는 모르는 곳도 많습니다.

이경우 그러면 방언을 연구한다는 것이 미지의 사실을 탐험하는 것이라고 하면 적절할까요?

이기갑 전혀 모르면 탐험이라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게까지 새로운 것을 많이 얻는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서 몇 시간 얘기하다 보면 제가 모르는 단어들을 만나게 되죠. 옛날 분들이, 특히 할머니들이 어휘력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언어의 예술사'란 말을 붙여도 좋을 정도로 풍부한 어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그 할머니들이 실생활에서 말하는 법을 잘 체득한 거군요.

이기갑 예를 들어 누룩을 빚는 과정에서 쓰시는 어휘를 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다양합니다. 신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분야는 모르지만, 자신들이 잘 아는 분야인 농사짓는 것에 대해 설명하시는 걸 보면 감탄할 정도로 어휘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많이 배우지요. 어떤 단어는 아주 낯선데 쓰시더라고요.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면 표준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말이지만 자주 안 쓰는 말, 그런 말들을 일상에서 쓰더라고요. 놀라고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경우 책이나 방송 등을 통해 익힌 말이 아니라 일상에서 익힌 말들이네요.

이기갑 네, 그분들은 그냥 일상에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뭘 굉장히 깊게 팔 때 '툪아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삼을 이어 붙일 때, 삼을 짤 때도 '툪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들이 표준말로 '툪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단어를 쉽게 일상적으로 쓰시는 걸 보면 정말 놀랍죠.

이경우 표준어는 모두 널리 쓰이는 듯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이기갑 사전에만 실려 있을 뿐 실제 안 쓰는 어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전에 실린 게 1930년대였기 때문인데, 조사해 보면 죽어 있고 사전에만 저장돼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이 여기선 살아서 쓰이고 있다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경우 방언은 뭔가 더 살아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 <곡성>에 나오는 "뭣이 중헌디"가 여기저기 신문 제목으로도 많이 쓰이고 그러더군요. 이렇게 영화나 다른 매체에서도 방언을 많이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방언이 지금 쓰고 있는

말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네요.

이기갑 그렇죠. 표준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니까 소홀히 하는 부분을 제가 하고 싶어서 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문화 콘텐츠 작업이나 상업 광고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작품 활동이 표준말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느낌이 잘 안 온단 말이죠. 그럴 때 방언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는 거리가 아직 꽤 많을 겁니다. 전라도뿐만 아니라 경상도, 제주도, 북한 방언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방언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경우 언론 매체 같은 곳에서는 방언보다 영어가 더 신선해 보이고 새로워 보인다고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기갑 영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사실은 방언이 할 수 있죠. 또 우리 것이니까 더 맛이 있고 그런데, 우리 방언은 안 쓰고 영어를 더 쓰네요. 방언을 쓰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나이 든 세대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거든요. 영어를 쓰면 젊은 사람만 반응을 보일 겁니다.

이경우 지금은 덜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어를 쓰면 좀 촌스러워 보인다, 표준어를 써야 번듯해 보인다는 의식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기갑 표준어 교육 중심으로 가고 한국의 정치, 경제가 서울 중심이니까 그렇게 됐죠. 그런데 지방 자치가 활성화된 뒤로는 방언의 위상도 꽤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지방민들의 자기 말에 대한 인식도 조금 더 새롭게 된 것 같고요. 과거에는 시골말이고 심지어 우리나라 말에서 없어져야 될 잡초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이건 잡초가 아니라 무궁무진한 콘텐츠의 보고죠. 요즘은 방언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경우 저절로 된 것은 아니겠죠? 아주 좋은 현상 같습니다.

이기갑 문제는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짧은 기간에 방언이 사라져 가고 있으니까요. 모든 방언이 다 그렇습니다. 20년 전, 30년 전과 지금 학생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 학생들은 방언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경우 좀 전에 식당에서 학생들이 하는 말을 일부러 들어 봤는데요, 표준어에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이기갑 학생들 말은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다르지만, 20대는 거의 표준말을 쓰고 방언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경우 방송이나 영화 같은 대중 매체의 영향, 그리고 학교 교육도 표준어 중심이어서 그렇겠죠?

이기갑 그렇죠. 그리고 전라도 말은 서울말과 같이 서쪽 지역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성조가 있기 때문에 표준말로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서쪽인 충청도나 전라도 사람들은 서울말로 바꾸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억양만 약간 다르지 표준말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국어 담화 문법을 찾다

이경우 이전에도 책을 연 단위로 내셨고, 작년에는 두 권을 내셨더라고요. ≪전라도 말 산책≫이 있고, ≪국어 담화 문법≫은 '우수 학술도서'로까지 선정됐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인지요?

이기갑 제가 낸 책의 상당수는 방언에 관한 것인데, 제가 공부한 게 크게 세 분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한국어 문법이지만, 책 가운데 하나가 2003년에 나온 ≪국어 방언 문법≫입니다. 그것은 한국어 전체 방언의 문법을 기술한 책이죠. 또 하나는 ≪언어 유형론≫이라고 해서 세계의 언어들 속에서 한국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가를 다룬 책입니다. 세 번째가 ≪국어 담화 문법≫이죠. 전에는 문법이 문장 단위로, 주로 문장에 관해 이야기하는 연구였는데요, '담화 문법'이라는 것은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문장을 넘어 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법적 현상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제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떤 문법적 규칙이 있는가, 말하는 규칙이 있는가를 찾는 것이죠.

이경우 그럼, 뭔가 다른 문법적 장치가 있다는 거네요?

이기갑 글로 쓸 때와 다른 방식인 거죠.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인자'가 있습니다. 말하다가 중간에 "그래 갖고 인자……." 라고 하는데요. '이제'라는 표준말이 이렇게 쓰이는 거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집어넣는 말을 '담화 표지'라고 하는데, 어떤 언어에서나 말할 때 그런 말을 중간중간에 집어넣어요. 마치 양념처럼 넣어서 말을 진행하는 거죠.

이경우 말이 아니라 글의 문장 속에서는 그게 대부분 빠지게 되겠네요.

이기갑 글에서는 그럴 수 없죠. 안 넣잖아요. 말할 때는 그게 안 들어가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그 자리를 비워 둬야 하는데, 말하다가 끊어지니까 비워 두지 않게 중간에 막 집어넣죠. 그런 말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분야를 '담화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 별로 연구가 안 돼 있지요. 제가 1991년에 미국 대학에 방문 교수로 가서 한 2년간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그걸 배워 가지고 돌아와서 조금씩 쓰기 시작한 것을 모은 게 ≪국어 담화 문법≫입니다.

이경우 미국에 방문 교수로 나가셨을 때 보셨고, 그게 계기가 됐군요.

이기갑 네, 그런데 돌아와서도 그것만 할 수가 없었죠. 2003년부터 지역어 조사 사업 같은 것을 하다 보니 두 가지를 하게 됐습니다. 담화

연구, 방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좀 늦었죠.

이경우 쉴 틈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글과 담화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기갑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순서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말할 때는 꼭 순서를 안 밟거든요. 뒤에다 뭘 붙이기도 하고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정보를 전달하는 데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글을 쓸 때와 다른 거죠.

이경우 글에서는 비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담화론에서는 비문이 없는 거군요?

이기갑 모든 것이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중간에 휴식을 취한다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거의 문법 연구가 주로 글을 대상으로 한 문장 문법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하려는 건 말의 문법인 거죠. 그래서 저는 '말법'이라 했어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말법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이경우 선생님께서 그쪽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신 건가요?

이기갑 제일 먼저는 아니고요, 초기에 한 것이지요. 근데 이게 방언 연구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도 살아 있는 언어잖아요. 말로 하잖아요. 방언을 글로 쓸 일은 별로 없어요. 방언 자체가 구술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담화도 다 녹음해서 전사해야 합니다. 제가 지역어 조사 사업을 할 때 구술 발화 조사가 좀 들어가야겠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죠. 저는 두 가지를 접목해 방언 담화, 그러니까 방언으로 된 담화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겁니다. 재미있는 것이 담화적인 차원에서도 지역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라도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집어넣는 말로 '그냥'을 많이 쓴다는 것이죠.

이경우　충청도도 좀 씁니다.

이기갑　‘기양’이라고 해서 중간에 ‘그냥’이라는 원래의 뜻 말고도 아까 말한 ‘담화 표지’ 형식으로 넣거든요. 이게 함경도 쪽으로 가면 ‘기양’을 안 쓰고 ‘그저’를 씁니다. ‘고저’라고 발음할 텐데, 북한 말을 들어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들립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고려 사람들 말을 조사하러 갔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냥’을 별로 안 써요. ‘그만’에 해당하는 ‘고마’가 있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중간에 ‘고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념으로 집어넣는 말도 방언에 따라 다르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경우　표준적인 시각에서 보면 불필요한 것이어서 말할 때 그런 것을 넣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죠? 말을 살리는 양념 같은 구실을 하는 거네요.

이기갑　그것은 말하기에서 양념이죠. 영어에서는 ‘유 노(you know)’ 같은 걸 많이 집어넣잖아요. 어느 언어에나 다 있는 현상인 거죠.

이경우　단어 차원의 표준어처럼 말 속에서 문장을 표준화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말씀 듣고 보니 정보를 자연스럽게 전달하진 못하겠습니다.

이기갑　문장으로 쓸 때는 깔끔해야죠. 그러나 말할 땐 글로 쓰듯이 말하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말은 기존 문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더 나아가 그것도 방언적인 차원에서 조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건 새로운 분야죠.

이경우　담화 연구의 성과가 그렇게 방언 연구하고 연결되는군요.

이기갑　예, 그렇게 접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시작한 분야인데 최근에 담화적·방언적 차원의 담화 연구를 서울대 대학원생이 조금씩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경우 그럼, 언어적 측면 말고도 좀 넓히면 이 분야가 인문학, 사회학, 한국학 등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탕도 될까요?

이기갑 담화 연구가 원래 미국에서는 사회학에서 시작됐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911 구급대원의 담화와 911 신고 전화 통화를 다 녹음해서 분석한다든가, 병원에서 환자와 의사의 대화를 분석하는 것 등을 사회적 맥락에서의 언어로서 주로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경우 사회언어학하고는 조금 다른 건가요?

이기갑 사회언어학이라 할 만하죠. 근데 시작이 사회학이었죠. 그것을 언어학에서 받은 것인데, '디스코스(discourse, 담론) 분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 사회 맥락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우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잘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구를 했을 수도 있겠군요.

이기갑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대화에서 오해도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부부간 남녀의 언어에서 오해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방언의 가치를 살리자

이경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담화 연구가 사회적 소통에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국어 교육은 표준어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갑 표준어가 필요하지요. 소통, 효율 같은 걸 따질 때 지방 사람들이 지역 말로 하면 중국처럼 소통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제주도 말은 다른 곳에서 소통이 안 되죠. 제주도 사람이 와 가지고 자기 말로 하면 물건 팔기도 어려워요. 제주도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려고 할 때 표준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방언을 말살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언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데, 전에는 학교에서 사투리를 쓰지 말라고 교육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당께" 뭐 이런 말을 쓰지 말라던 교장 선생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경우 지역어를 연구하고 보급하고 교육하는 환경이 아직 좋은 것은 아니죠?

이기갑 방언을 연구하는 사람이 우선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우선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하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냥 책상에서 책 보고 자기 머리로 연구하는 것에 비해 그 밖의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과거에 비해서 방언 연구 학자들이 줄었습니다. 또 방언이 많이 소멸돼서 연구거리를 찾으려면 깊이 파야 하는데 광산으로 말하면 겉에 드러난 광석이 별로 없어요. 쓸모는 더 많은데 과거에 비해 대학원생도 많이 줄었고요. 서울에 있는 학자들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방언 연구가 어렵습니다. 어디를 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방언학 강의는 웬만한 대학 국문과에는 없을 거예요.

이경우 저도 국문과를 다녔는데요. 방언학 강의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기갑 나는 방언학 강의를 하고, 교양 과목으로도 '전라도의 말과 문화' 이런 강의가 있거든요. 지역의 문화나 말을 가르치는 강의가 있는데, 서울에서는 표준말 중심으로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방언 연구의 환경은 과거에 비해 많이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 국어를 전공하는 학생 수는 많아졌거나 비슷하지만 방언 연구는 오히려 움츠러드는 상황인가 봅니다.

이기갑 처음에는 방언을 연구하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딴 걸로 옮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는 각광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학자로서의 성취를 못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골 출신 학자는 '출신도 시골인데 공부하는 것도 시골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방언을 연구한다니까 처남이 표준말을 연구하지 그러냐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방언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경우 방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희소가치가 있고, 사회적 수요도 좀 많아진 것 같은데요, 이럴 우려는 없을까요? 표준어가 너무 강해져 방언이 사라질 우려 말입니다.

이기갑 있지요. 언어도 마이너 언어가 많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어휘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추'를 충청도에선 뭐라고 합니까?

이경우 저도 부추라고 합니다.

이기갑 우리는 '솔'이죠. 충남에서는 '졸'이라고도 하고요. 경상도는 '정구지', 그다음에 '서불', '서풀'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부추'라고 하지, '솔'이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부추'라고 하니까 집사람이 60대인데도 그렇게 바꿔 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딸 정도로 가면 '솔'이란 말은 전혀 쓰지 않을 겁니다. 우리 집사람은 알지만 안 쓰고, 딸은 아예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방언의 어휘는 사라질 것 아니겠어요. 억양은 좀 더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경상도의 성조는 더 오래 남지만, 서쪽 지방의 억양은 표준화되기 쉽겠죠.

이경우 그러면 지역의 특색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맛이 살아 있는 언어생활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이기갑 우리나라는 좁은 데다 교통도 발달했습니다. 옛날부터 전라도는

음식 문화가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지방으로도 전라도 음식이 전해져 비슷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문화적인 평등화? 균일화? 이게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처럼 나라가 넓으면 모를까 우리나라처럼 좁은 나라는 지금은 아무런 장애가 안 되잖아요. 과거에는 교통이 불편해서 언어가 분화됐지만요. 얼마 안 있으면 결과적으로 균일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방언을 보존하려고 애를 써 봐도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우 어찌 됐든 지역어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을는지요?

이기갑 시간이 갈수록 결국은 균일화된다고 나는 보지만 속도는 좀 늦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노력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지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로서 이용할 만한 가치가 상당히 많은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우 새로 계획하시는 일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갑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방언에 따른 담화 표지, 말할 때 양념처럼 섞이는 말들이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담은 책을 1, 2년 안에 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경우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갑 고맙습니다.